



# 천둥·번개 1642차례 '괴물'이 밤새 울었다

광주-전남에 지난 3일 오후부터 4일 오전까지 하룻밤 새 1600여 차례가 넘는 낙뢰가 관측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에 폭우와 함께 1600회 넘는 낙뢰가 비처럼 쏟아지면서 시민들은 '공포의 밤'을 보내야 했다.

기후 변화로 광주-전남의 기후가 대기 불안정성이 심하고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는 데 따라 낙뢰 발생 빈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주에는 317번, 전남에는 1325번의 낙뢰가 쳤다. 4일 오전에도 전남에서만 17번의 낙뢰가 추가로 관측됐다.

광주의 경우, 하루 동안 천 낙뢰의 수가 지난 2024년 8월 한 달동안 쳤던 낙뢰(255번) 수를 뛰어넘었다.

전남은 지난해 8월 총 6505번의 낙뢰가 쳤는데, 지난 3일 하루에만 한 달 칠 낙뢰의 20%가 몰아 친 것으로 나타났다.

낙뢰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 3일 광주-전남에서 총 529건의 정전 신고가 접수됐고, 광주시 남구·무안·함평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상청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낙뢰를 맞아 전원이 꺼지거나 통신이 불안정해지는 등 오작동을 일으켰다.

이날 천 낙뢰 수는 최근 5년 동안 8월 한 달 동안 천 낙뢰 횟수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광주 지역에서 8월 한 달 동안 낙뢰가 관측된 건수는 2019년 34번, 2020년 134번, 2021년 440번, 2022년 23번, 2023년 7번 등이다. 전남에서는 2019년 2031번, 2020년 2577번, 2021년 4609번, 2022년 1055번, 2023년 715번의 낙뢰가 기록됐다.

기상청은 이처럼 낙뢰가 이례적으로 '빽빽한' 원인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대기를 꼽았다.

폭염 등으로 지표면이 달궈지면 따뜻한 공기가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대기 중 수증기도 많아지면서 강한 비구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가 내릴 때는 구름 내 양·음전하의 마찰이 잦아지면서 구름 내부의

광주 하루 317·전남 1325회 지난해 8월 전체 횟수 '홀짝' '아열대성 기후'에 낙뢰 늘어

전하 차이가 커지고 번개가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후가 아열대성기후로 변할 수록 낙뢰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록만으로 장기 추세를 논할 수는 없으나,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폭염

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강한 비구름이 형성돼 폭우가 내리는 현상이 반복될수록, 낙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번개는 다량의 수증기와 고온으로 인한 상승 기류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만큼, 이같은 현상이 잦은 열대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한반도를 비롯한 전 지구적인 온난화로 인해 열대가 아닌데도 열대와 유사한 기후를 보이는 지역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낙뢰는 대부분 비구름이 크게 발달할 때 생긴다. 일출 알갱이, 강한 상승기류, 불안정한 대기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한다"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비처럼 극단적인 집중호우가 강화된다면 낙뢰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강이 된 들녘 무안과 함평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4일 함평 염다면 농경단지가 물에 잠겨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노조법 2·3조-방송3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민노총 광주본부,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전국민노총조합총연맹 광주본부(이하 노조)가 노조법 2·3조 및 방송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내란정부가 가장 잔혹하게 탄압한 대상이 노동자였다는 점을 잊지 말고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인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

는 경우에만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쟁의행위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 조건에만 한정돼 있어, 파업이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오후 4시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진아 기자 jinggi@

## “전남 곽사길·이영식 독립유공자로”

민족문제연구소 ‘해남·완도 등서 항일단체 재건 기여’... 전국 37명 포상 신청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해남·완도·장흥 등지에서 항일운동을 한 곽사길과 이영식 등 독립운동가 37명에 대해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올해 초부터 독립운동가 행적 검증을 했고, 지난 6월 30일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다.

연구소는 곽사길과 이영식이 전남 지역에서 항일

운동단체 ‘전남운동협의회’를 재건했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가 씌워져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이 ‘요주의 조선인’ 정보를 정리해 보안 관계자, 헌병대 치안 책임자 등에게 배포한 ‘약명부’에서 친일 행적이 확인된 사람을 제외하고 총 37명에 대해 포상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전남 관광 ‘반값’... 블루투어 1+1 어때요

목포·여수·나주 등 9개 시·군 참여

전남 핵심 관광 상품을 절반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4일 전남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올 여름 전남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케이블카·요트·짚라인·아쿠아플라넷 등 테마 체험상품을 정가의 50% 수준으로 즐길 수 있는 ‘블루투어 1+1 이벤트’를 마련, 운영한다.

이벤트는 서해안권 블루투어 콘텐츠를 상품화한 9개 시·군(목포·여수·나주·광양시와 담양·강진·해남·구례·신안군)의 17개 업체가 참여한다. 네이

버 검색창에 ‘전남 블루투어 1+1’을 검색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SOSOK’ 앱 또는 웹 페이지를 통해 2000명까지 선착순으로 구매 및 예약하면 된다.

대표 체험 상품으로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낭만요트, 구례 섬진강 짚라인·스카이버이크, 강진 가우도 짚트랙·모노레일,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여수 아쿠아플라넷, 광양 에코파크, 담양 달라이트 등이 포함된다.

전남관광재단 김영선 대표이사는 “많은 관광객이 전남의 매력적인 블루투어 체험상품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험 상품을 발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

## 국제농업박람회 푸드트럭 운영자 13일까지 모집

2025 국제농업박람회(10월 23-29일) 기간 식품시설 운영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람회 기간 주재전시관인 농업미래관 옆 부폐관(288석·600㎡)과 행사장 내 푸드트럭 운영 희망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광주-전남 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농업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국제농업박람회 행사운영팀으로 하면 된다.

2025국제농업박람회는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대에서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열린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